

베트남, 인도 정부 차관을 통한 고속 순찰정 건조

'26. 10. 6.(화), 하노이 무역관

□ 개요

- 9월 23일 베트남 해양경찰은 인도 정부의 양허성 차관을 활용한 TT-1500 고속순찰정 건조사업의 MS-05 패키지 계약 체결식을 하노이에서 개최하였음



베트남 해양경찰 - 인도 Larsen & Toubro(L&T)사 간 계약 체결 (자료원: 현지언론)

□ 상세 내용

- 인도와 베트남은 오랜 기간 안보·국방 분야에서 아래와 같은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음
 - 군사교육·훈련 지원 :
 - 인도는 잠수함 작전 분야에서 베트남 장교 및 해군 인력 약 550명 대상으로 교육·훈련을 실시

- 공군 분야에서는 베트남의 Su-30 전투기 조종사 양성을 위한 비행훈련 지원에 합의
- 군사 정보통신기술(ICT) 및 전자전 분야에서도 베트남 군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관련 전문교육 및 인력양성을 지원해 옴
- 해군·해양안보 협력 :
 - 인도는 해군 함정을 캄라인(Cam Ranh), 다낭(Da Nang) 등 베트남 내 주요 항구에 정기적으로 파견하여 문화 교류를 해옴
 - 양국은 해군 장교 간 해양안보 관련 정보 공유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
 - 또한 양국 해군은 정기적으로 연합훈련을 실시하며, 다국적 해상 훈련인 밀란(MILAN) 훈련과 해상 수색·구조 훈련 등에도 합동 참여하며 실질적인 해양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
- 방산 차관 지원 :
 - 인도는 2014년 베트남에 1억 달러 규모의 방산 차관을 제공하여 고속 순찰정 건조를 지원함
 - 이어 2016년에는 베트남의 국방역량 강화를 위해 5억 달러 규모의 방산 차관을 추가로 제공함
- 인도 정부의 우대차관을 활용한 TT-1500 고속순찰정 건조사업은 베트남 해양경찰의 함정 전력 확충 및 현대화에 기여하는 양국 간 주요 방산 협력사업으로 평가됨
- 베트남 해양경찰은 현재 2,500톤급 DN-2000 순찰함을 비롯해 Hamilton급, TT-400급, TT-120급 및 TT-200급 순찰함 등을 운용하고 있음
- TT-1500 고속순찰정은 배수량 약 1,500톤급의 대형 순찰함으로, 기존 TT-400급과 DN-2000급 함정 사이의 전력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될 예정

□ 무역관 의견

- 베트남은 해양안보 역량 강화 및 해양경찰 함정 현대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, 인도와의 TT-1500 고속순찰정 건조사업은 이러한 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협력 사례임
- 특히 함정 도입뿐만 아니라 금융지원, 교육·훈련, 기술협력 등을 연계한 포괄적 협력 방식이 확대되고 있어 향후 베트남의 해양안보 분야에서 베트남-인도 양국 간 협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
- 베트남의 해양경찰 및 해군 전력 현대화가 지속됨에 따라 국내기업도 함정 건조뿐만 아니라 선박 기자재, 통신·감시체계, 항법장비, 정비·유지보수(MRO), 교육·훈련 등 연관 분야의 진출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
- 다만, 베트남 방산·공공안보 분야는 정부 간 협력 및 현지 기관과의 네트워크가 사업 추진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만큼, 국내기업은 단순 제품 수출보다는 G2G 협력, 현지 파트너 발굴, 기술협력 및 사후지원 등을 연계한 중장기적 시장진출 전략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

□ 정보원 및 일자

- Quan doi nhan dan / '26. 9. 23.

- 링크:

<https://www.qdnd.vn/quoc-te/doi-ngoai-quoc-phong/canh-sat-bien-viet-nam-ky-ket-hop-dong-dong-moi-tau-tt-1500-1058052>

<끝>